

보도해명자료

(17.1.3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장관 방미일정도 못잡고…대미 통상정책 ‘혼선’ ”

(17.1.31.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24~28일간 미국을 방문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향후 예정된 산업부장관의 방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돌아옴
 - 결과적으로는 인준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며칠 새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선 셈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은 상무부, USTR 등 해당 각료의 인준이 완료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는 사안임

※ 상무부장관, USTR 대표,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상원 인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

- ☐ 금번 통상차관보의 방미는 해당 각료의 인준 이전, 최대한 조기에 현지 동향파악과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음

* 방미기간 중 상무부, USTR 등 관계부처, 상하원, 헤리티지 재단 등 고위 관계자 면담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과장 (044-203-5650)
최성준 사무관 (044-203-5651)